

그. 많. 데

# 동발야사

동아리 발표대회, 그 뒷 이야기

3 4 0 4 강석훈, 3 5 1 7 심정현

3개월전 SNS를 만들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.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만나 보려고 했는데요. 쉽지 않더군요. 워낙 낮을 가려서... 힘들게 인터뷰 했습니다.

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잡지가 한 편 더 나와서 여러분들이 싫어도 한 번 더 보게 돼버렸네요.

혹시 WIX가 싫다고 징징대던 찌질했던 그 두 명, 기억하시나요? 소문에 의하면 한 명은 그많데 동아리 발표 때, 껍껍거리며 무대에서 난동 피웠고, 한 명은 가오 잡으면서 말리고, 휴지통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했다던데, 사실인가요? 그게 사실이라면 대상 받은 '그. 많. 데'라는 동아리는 정말 대단한 동아리인 것 같네요. 생각하면 생각할 수 화가 났치지만 그 친구들을 오늘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.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. ~~아니, 쌍, 내가 애플도 아니고, 왜, 애플터서비스(AS)를 해줘야 하는 거지?~~

## 목차 (없으면 배치가 이상해져서..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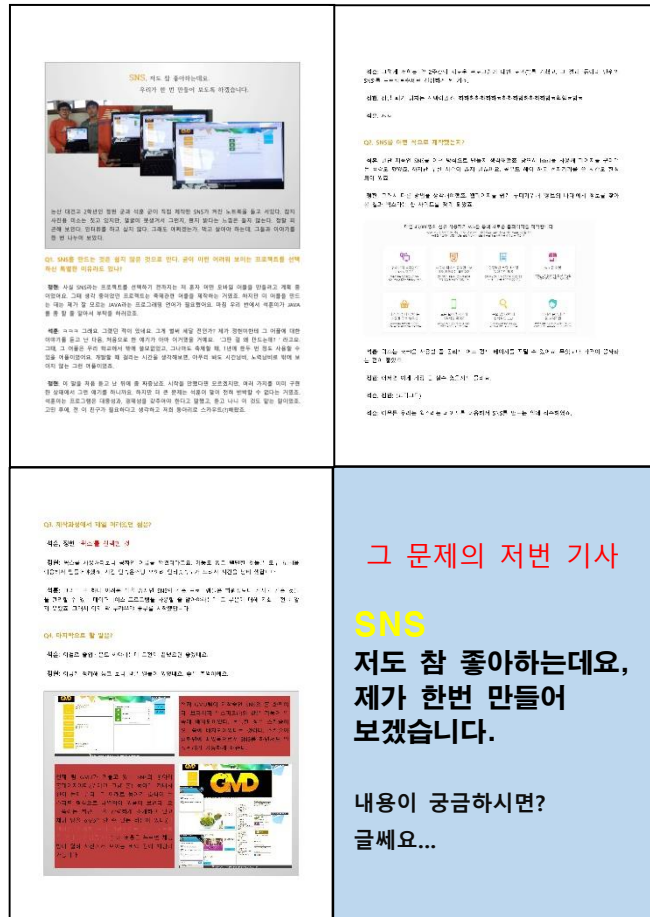
1. WiX 이 후 고쳐진 점
2. 동아리 발표 후 이야기
3. 향후계획
4. SilverFish?

### Wix 이 후 고쳐진 점

Q1. Wix를 이용하고 많이 후회했던 걸로 기억한다. Wix를 버리고 새로 만든 SNS는 어떤 점이 바뀌었는가?

A. 우선 못생겨졌다. Wix 예비해 확실히 디자인이 좋지 못하다. 대신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 되었다.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자.

다음 장으로 뿔! !'



우선 '휴지통' 이 기능 정말 멋진 기능이다. 버리고 싶은 게시글은 버리고 버린 것들도 필요할 땐 다시 복원하는 기능 (아동페이지를 찾은 후 휴지통에 버려두자. 부모님께 걸리지 않는다.)

다음으로 소개할 기능은... 없다.

그냥 '프로그래밍 언어 공부를 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.' 정도 인듯하다. 그래도 Wix 에 비해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가 소소한 요소를 다루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꽤 좋은 듯 하다. 하하

Q2. Wix 를 버리고 고생했다고 들었다. 구체적으로 어떤 고생을 했는지..?

A. HTML5, CSS3, JavaScript, NodeJS, MongoDB, Express, Socket.io, Connect, JQuery, Ajax, MySQL(이젠 안씀), PHP(이것도 안씀) 를 공부했죠. 하... 근데 결과물이 아직 뚜렷하지가 않아요. 언젠간 완성될 그 날을 기다리며 작업 중이에요. 조만간 베타테스터들을 모집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! ○.<(짱긋)

동아리발표 야사

Q1. 동아리 발표 대회 때 미친 짓을 했다고 들었다.

A

정현: 미친짓이요?

석훈: 그거 있잖아. 니가 한 거, 니가

정현: 아 그거.. 기억난다. 그때 내가 뭐했지?

석훈: 손나은 사진보고 발광했잖아.

정현: (당황)

석훈: 그거 물어보시는거 맞죠?

-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을 받았다-

기자: 아..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좀.....

석훈: 전체적으로 저희는 대본이 없었어요. 원래 그냥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냥그냥 뭐더라? SNS 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했는데, 이 미친새\*가 애드립을 하더라고요. 사실 쪽 팔렸어요. 그래도 어찌겠어요. 먹고 살아야 하는데.

기자: (당황)

정현: 그냥 손나은을 보니 발광하게 되더라고요. 손나은 만세

석훈: 이런 애 데리고 인터뷰 가능해요?

-급하게 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-

Q2. 동아리발표대회를 하고 나서 느낀 게 있는가?

A

정현: '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' 는 거?

석훈: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
정현: 또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목표를 위해 달려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때도 극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옆에 있어줘서 감사했지.

석훈: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
정현: 마지막으로 저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친구들 모두 고맙고 심사위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무엇보다 절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. 고 3 여러분들 힘내시고 2 학년친구들 공부 열심히하고 신입생여러분 입학 축하해!

석훈: ㅋㅋㅋㅋ....ㅋㅋㅋ....ㅋㅋㅋ..ㅋㅋㅋㅋ 숨이 안쉬ㅋㅋ저져ㅋㅋㅋㅋㅋㅋ

-정말 이상한 친구들이군요. 인터뷰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. 그래도 할 건 해야죠. 최대한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자고 싶군요.-

앞으로 뭐하실 거예요.

A. 질문 더 없나요? (짐을 챙긴다)

Q. (ㅅ..\*)앞으로 뭐하실 거냐고요.

A. 아 앞으로 그냥 일단 사는데 집중하려고요. 그리고 SNS 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에요.

졸업하기 전엔 완성되지 않을까요? |('ㅂ')/

-한숨만 나오는군요.  
근데 실버피시는 좀벌레란 뜻인데 왜 쓰신 거예요?-

이런 한심한 활동보고서  
봐주셔서 감사합니다.



A. ?????(급하게 찾아본다) ㅅ ㅂ ...